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6. 5.(일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책임자	과 장 강검운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 한창훈 (044-202-8953)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건 공소장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6.5.(일) 매일경제(인터넷), “못미더운 중대법 수사... 檢 전관에 공소장 의뢰”

- 최근 산안본부 관계자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중대재해사건의 유형별 범죄사실 기재례 샘플 작성을 의뢰했다는 의혹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.
-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산안본부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방증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해당 변호사가 중대재해사건을 맡았을 때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.
-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변호사 측의 법리다툼이 팽팽하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업무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.

2. 반박 내용

- 산업안전보건본부는 ‘22.1.27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례 샘플 작성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,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
- 한편 6.5.(일) 기준 중대산업재해는 78건이 발생하였으며, 이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8건을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으며, 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.